

템플스테이 광고전 대상 '마음의 쉼표'



한국불교 문화사업단(단장 법진)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이창)가 공동주최로 실시한 '제1회 템플스테이 대학(원)생 광고 공모전'에서 '애플화식' 팀 이진희(24, 상지대), 조정화(22, 상지대)의 '마음의 쉼표' (사진)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대상작인 '마음의 쉼표'는 템플스테이의 이미지를 알기 쉽게 형상화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템플스테이 1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이번 공모전은 대상 외에도 특별상 1팀, 각 부문별로 최우수 1팀, 우수상 2팀, 장려상 3팀이 입상했으며, 시상식은 9월 20일에 개최됐다.

신종일 기자

전통발효음식 교육과정 개설

진관사, 26일부터 16주간

원장과 고추장 등 전통발효음식 강좌가 마련됐다. 진관사(주지 계호 스님)는 9월 26일부터 16주과정으로 '전통발효음식 조리사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16주 동안 총 40시간 과정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중소기업청의 '시니어 창업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선정돼 후원으로 진행된다. 이 강좌는 원장과 고추장, 장아찌 등 각종 저장 발효음식 조리에 대한 이론과 실습 강의로 진행된다. 이는 향후 사찰음식 조리사로서 창업 및 창직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제공돼 눈길을 끈다.

강의는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스님과 연구원, 한의사 등이 강사로 나서 저장발효음식에 대한 조리법과 효능 등의 이론강의가 진행된다. 또 수강생들이 수업시간에 직접 만든 발효음식을 판매용으로 포장하고 판매까지 체험하는 과정이 마련된다.

또한 수강생을 4개 팀으로 구성 멘토를 배정, 교육 이수 후 실제로 창업이나 창직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정혜숙 기자

“사찰 중첩규제 법령 철폐해야”

김봉석 변호사, 20일 선재포럼 정책 세미나서 강조

전통사찰들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봉석 법무법인 신아 변호사는 9월 20일 국회의원회관(상임대표 박대성) 주최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먼저 김 변호사는 불교 규제 국가 법령과 더불어 봉은사와 승가사 등 피해사례에 대해 주목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도시공원법의 규제를 받고 있는 강남 봉은사는 신도회 건물 등 19개소를 신축하며 2500만원의 벌금을 받았고, 강북 화계사는 대적광전, 보화루가 불법 건축물로 지정돼 강제 이행금 5억 원, 변상금 1억 5천만 원이 부과됐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전통사찰은 중첩 규제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무허가 건축물을 신축할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을 소유권 제한에 대한 보상금을 감안해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찰의 과도한 규제를 해 제하고, 전통사찰의 자율권을 부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택지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변호가는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전통사찰 중첩 규제로 무허가 건물 양산, 제한 따른 이행강제금 감면해 이익 배분 시 종교 할당제 필요

찰의 수용보상금을 건물과 토지 시가로 선정하는 방식 ▷토지 제매수의 어려움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신도시 종교용지 분양에 있어서도 ▷종교별 할당제 실시 ▷토지 수용 사찰에 대한 장기 임대 ▷수용된 전통사찰의 우선 분양권 배정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신도시 내 종교 용지 분양에 있어 불교계가 분양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며 "대부분 종교 용지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자금력과 정보력을 갖춘 개신교계가 독식하고 있다. 분양 방식에



선재포럼은 9월 20일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봉석 변호사는 전통사찰 중첩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대한 제고와 종단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에 산재한 폐사지와 노천문화재에 대한 정책 개발 필요성도 제기됐다. 장용철 안양대 교수는 "폐사지 및 노천문화재 관리를 위한 정책" 제하의 발제를 통해 "비지정 사지와 노천문화재의 문화재적 가치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접근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이를 위해 불교문화재 연구소의 현황조사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문화재청 차원의 관심과 예산 지원,

사지 관련 규정 시행 위한 관련법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교계 현안에 대한 정책 마련을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는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을 비롯해 조계종총무원장 특보단장 원담스님, 대교총무원 부원장 청봉스님, 진각종 문사부장 덕정정사, 정갑윤, 안홍준, 김장실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선재포럼은 오는 10월 중순 새터민과 다문화가족, 종교화합 등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신종일 기자 molp79@hyunbul.com

“깨달음은 세상을 바로 이해하는 것”

조계종 결사추진본부, '야단법석' 첫 마당 열어

불교의 최종 목표는 깨달음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9월 19일 조계종 자성교과신결사추진본부(본부장 도법)가 조계사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한 '야단법석 시즌2'에서는 이런 깨달음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이뤄졌다.

첫 번째 마당의 주제는 '깨달음은 무엇일까'다. 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은 자기 회고적 질문들을 던졌고, 이 질문을 교육원장 현응 스님이 답했다.

현응 스님은 "깨달음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법을 설명하는 정확한 용어는 아니다"며 "중국어에서 '깨달음'이라는 경지가 있는 것처럼 설정하고 이런 영향을 한국불교가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경전에서 '깨달음'을 명시한 구절은 없다"면서 "굳이 깨달음을 이야기한다면 '삶과 세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답을 진행한 도법 스님 역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깨달음이고 불교"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종 결사추진본부가 개최하는 '야단법석 시즌2' 두 번째 마당은 9월 26일 오후 7시 '깨달음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이 야기 손님으로는 조계종원로의원 고우 스님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종일 기자

“경주캠 강도 높은 구조개혁”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 종관위 발송 공문서 밝혀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이 최근 퍼스의 학문 구조는 인문학 학제로 구성된 대학이 취업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인은 경주캠퍼스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 주문을 천명했다.

정련 스님은 9월 17일 총림학교 관리위원회에 전달한 공문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스님은 "최근 대학 평가의 척도는 취업률이지만 현재 경주캠퍼스의 학문 구조는 인문학 학제로 구성된 대학이 취업률을 제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인은 경주캠퍼스에 강도 높은 구조개혁 주문을 천명했다"고 강조했다. "미래지향적이며 사회적 수요가 우선되는 학문 구조로의 이행만이 대학 구조조정의 엄중한 현실에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2년 뒤 아시안게임에서도 기적 이룰 것”

런던올림픽·패럴림픽 불자 선수단 환영 법회



조계종 포교원은 9월 17일 불자선수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제30회 런던올림픽 제14회 패럴림픽 불자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올 여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2012런던올림픽과 런던패럴림픽 선수들이 불자들의 환대를 받았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올림픽과 패럴림픽 불자 선수들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9월 17일 한국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제30회 런던올림픽 제14회 런던패럴림픽 불자 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군중교구장 자광 스님, 이운택 체육인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이기흥 런던올림픽 선수단장(25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박종길 태릉선수촌장, 체조 양학선 선수, 배드민턴 이웅대 선수 등 사부대중 150여 명이 참석했다.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환영사에서

"이런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그 어느 때 보다 불자선수들의 뛰어난 활약으로 좋은 성적을 거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다"며 "앞으로 선수들이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

낼 수 있도록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스님은 장영술 양궁 국가대표팀 총감독을 비롯한 9명의 감독과 코치들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이기흥 런던올림픽 선수단장은

답례사에서 "선수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의 가피가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2년 뒤에 열릴 인 천아시안게임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불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이은정 기자·사진=박재완 기자

생할 속 참선수행 프로그램
한마음공생실천과정

나로부러의 시각

내 마음에 엄청난 보배가 있음을 믿고
그 자리에 일체 경계를 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마음 속 보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마음공부입니다.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은 www.hansi.org 참조

제 4차 봉녕사 사찰음식수대향연

자연의 맛 나눔의 마음

프로그램 동문스님들 바자회
바라밀장터
산사음악회 (사회:이수근 1박2일출연)
보시행 속의 경연마당
지계행 속의 시연마당
인욕행 속의 탁발공양마당
정진행 속의 정보마당
선정행 속의 공연마당
지혜행 속의 체험마당

문의 및 안내 봉녕사 031.256.4127
www.bongnyeongsa.org
m.bongnyeongsa.org

※사찰음식 경연대회 참가신청은 10월 2일 화요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 참조)

2012.10.5 금 - 10.6 토
경기도 수원시 봉녕사

주최 대한불교 조계종 봉녕사
주관 봉녕사승가대학, 금강울릉승가대학원,
묘엄불교문화재단, 심우불교대학, 선우회,
진여회,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후원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방경찰청